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문헌고찰: 생태학적 접근

윤 종 희¹⁾

동덕여자대학교 가정복지학과

하 수 민²⁾

동덕여자대학교 여성사회교육원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최근까지의 문헌에서 관련 변수들을 생태 체계별로 정리하여 장애아 어머니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해주는 변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묘사하는데 있다. 이러한 생태학적 시도는 본 연구의 결과가 장애아 가족에 대한 가족적, 사회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 및 정책입안의 기초 자료로 보다 쉽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생태학적 관점은 이들 가족을 위하여 잔여적이며 위기 중심적이 아닌, 보다 예방적이고 제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본다.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지어 유기체,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변인들이 21개 탐색되었으며, 문헌 고찰 결과에 근거하여 몇 가지 새로운 연구모델이 제안되었다.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관련 연구들을 생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추후 이론적으로는 장애아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임상적으로는 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어 : 장애아, 장애아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생태학적 접근

1) 동덕여자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2) 교신저자: 하수민, 동덕여자대학교 여성사회교육원 강사, E-mail: sumin1212@hotmail.com

I.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아기의 탄생은 일상을 바꾸어놓는 주요 변화이며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획기적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출산은 긍정적으로 인식되지만 이에 따르는 몇 가지 변화, 예를 들어, 개인시간 부족, 지출확대, 양육으로 인한 피로와 부담은 기존 가족생활 패턴에 변화를 초래하는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태어난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부모가 겪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Strom(1984)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태도와 기대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아 부모도 정상아 부모와 유사한 양육 태도와 기대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장애아들은 부모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요구가 많으므로 양육에 들어는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다는 것이 양육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장애가 없을 경우, 때가 되면 양육 부담이 줄어들지만, 장애아 경우는 부모 보살핌이 훨씬 더 오랫동안 필요하리라 예상되므로 그들의 미래에 거는 희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또한 부모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한다(하수민, 2002).

장애아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보다 높음이 다수의 국내외 문헌으로 입증되었으며(김은숙, 1990; 배광웅, 1986; 양경화, 2001; 장진국, 1995; 전순영, 1984; Noh, et al., 1989; Singer & Farkas, 1989), 장애아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다(Bradshaw & Lawton, 1978; Bristol, 1987; Chetwynd, 1985; Friedrich & Friedrich, 1981). 장애아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국내 연구는 찾을 수 없지만, 만약 조사되었다면 고통의 정도가 훨씬 더 심했으리라 본다.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그 영향이 어머니 혼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 전체에 파급 효과가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가족 체계 이론에 따르면, 체계 내 하나의 하위 체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다른 하위 체계를 변화시키고 종국에는 체계 전체의 변화를 유도한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다시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부모-자녀 관계를 변화시키며, 이러한 변화는 양육행동을 통하여 다시 아동의 발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발달 결과는 또다시 부모의 부부관계, 아버지의 심리상태와 어머니의 심리상태에 연이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고리는 순환적이다.

이와 같은 체계 이론의 가설에 대한 간접적 입증 자료는 다수 있다. Tew와 그의 동료들(1977)은 이미 오래 전에 장애아 부모의 이혼율이 보다 높다고 하였고, 또 Bristol과 그의 동료들(1988), Friedrich와 그의 동료들(1981)도 장애아를 둔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보다 낮다고 하였다.

장애 아들은 주지하다시피 일상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부모 의존도가 높다. 더구나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부모는 이들의 욕구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추가 양육부담 때문에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더 많이 느낀다(Hamner & Turner, 1985). 실제로 이들은 이로 인해 갈등과 무력감을 경험하며(Girdner & Eheart, 1984), 행동 제약을 많이 받는 탓에 개인 시간과 여유가 없음을 호소한다(Korn, et al., 1978). 이러한 형편에서 이들이 가족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여가 생활, 가족 여행과 외출은 더욱 힘들 것임은 조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Singer & Frakas, 1989).

그러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개인마다, 또 가족마다 다르다. 장애아 부모의 스트레스가 높다고 해서 모든 장애아 가족들이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것만은 아니다(유희정, 2002). 장애아 어

머니가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기는 하나 많은 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있으며, 현실적 치료와 교육을 통해 기대 이상의 바람직한 적응을 하는 부모도 있다(이애현, 1997).

Wiltner(1988) 또한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의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혼자서도 스스로 잘 해결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과 이 믿음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가는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이 시사하는 것은 장애아 부모들이 긍정적이면서도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려면 먼저 가정에서부터 부모 역할과 가족 기능을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Mori(1983, 정청자 1988, 재인용)에 따르면, 사회는 이들에게 부모 역할을 유능하게 수행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이들 개개인에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가 충족되게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후에야 이들이 장애아 부모라는 새로운 도전에 맞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부모가 장애 자녀의 발달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자신의 환경부터 가족원 모두의 발달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녀의 장애는 양육자에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긴장을 초래한다. 이들의 문제는 일반적인 양육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 스트레스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장애아 부모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녀의 장애에 대해 심리적으로 적응하게 되거나, 또 세월이 흘러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해서 그 상황을 수용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기보다는 장애 자녀가 인생의 전환기에 이를 때마다 슬픔과 고통이 되풀이되고 심화된다는 점에서 이들이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는 일반적

인 양육 스트레스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

장애 아동의 양육과 치료에는 어머니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와 프로그램들이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어머니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방치되고 소홀했음이 최근 지적되고 있다(유수기, 2000).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들은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론으로만 강조하고 있을 뿐, 어떠한 변인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력을 갖는지 종합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설명력을 가진 이론적 배경으로 어떠한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 심도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까지의 문헌을 바탕으로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보고된 연구 결과들을 생태 체계 변인별로 정리함으로써 장애 아동 어머니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해주는 변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묘사하는데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가 이들에 대한 가족적, 사회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 및 정책입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장애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생태계의 주요한 장으로서, 아동보다 어머니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과 어머니의 역할 스트레스에 관련된 연구들을 생태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선행 연구들과 다른 접근이다. 그럼으로써 추후 이론적으로는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임상적으로는 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인간과 환경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Bronfenbrenner(1979)의 인간발달의 생태학 이론이다¹⁾. 본 연구가 생태학

1) 그는 개인의 환경을 “러시아인형 세트처럼 하나의 인형이 다음 인형 안에 겹겹이 포개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형상화하였다(1979, 3쪽). 이 겹구조에 적용된 개념적 용어는 미시체계(the microsystem), 중간체계(the mesosystem), 외체계(the exosystem), 그리고 거시체계(the macro system)이며, 이 구조적 체계의 본질은 상호작용적이다. 특히 그는 인간-환경간 상호작용 관계를 탐색함에 있어 탈맥락적(development-out-of-context)이 아닌 맥락 내(development-in-context)의 인간발달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하였다. 생태학적 접근의 기본 가정은 첫째, 인간체계 내의 상호의존과 인간-환경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둘째, 체계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목표지향적 적응과정을 거치는 역동성을 지닌다. 셋째, 이 이론에서는 가족을 에너지 전환체계로 본다. 에너지의 흐름과 정보는 부분을 전체로 연결시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적응기능을 제공한다(Andrews, et al., 1980). 그래서 이 이론은 인간발달의 과정, 발달이 일어나는 환경, 그리고 모든 인간이 처해있는 다차원적인 환경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연계성을 살피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지닌다(윤종희, 1994).

생태학 이론에서는 모든 가족이 강점과 스트레스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이것은 가족이 스트레스에 대한 극복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암시한다. 가족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족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수립과정 시 가족의 “취약점”을 “수정”하기보다는 가족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이 우선된다. 가족지원의 목적은 가족의 기능 상실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Cochran, 1988). 생태학적 관점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뿐 아니라 국가 수준의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다. 생태학적 관점으로 본 복지정책은 개인에 대한 원조와 사회변화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이 둘을 통합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 관점은 개인이 인지한 사회 환경을 환경에 포함하고 이것을 다시 개인의 발달적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그 안에서 환경의 역할을 조망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복지 서비스 수혜자라는 낙

적 관점에서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관련 설명 요인을 추출하는 이유는 장애아 어머니의 심리 상태에 작용하는 모든 환경 체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장애아 어머니를 둘러싼 환경의 역할과 기능을 파악하여 그들의 생태학적 소영역(niche)-개인과 환경의 적합도(goodness-of-fit)에 의거하여 인간이 자신에게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는 환경 영역을 파악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줌으로써 사회가 이들에게 예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안내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은 장애아를 가진 가족을 위하여 잔여적이며 위기 중심적이지 아닌, 보다 예방적이고 제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본다.

II.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의 고찰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 모형은 하수민(2002)이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의 생태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사용한 모형을 근간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유기체 변인은 어머니의 연령, 학력, 종교, 취업여부, 우울증, 자아 존중감을, 유기체 변인과 일상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미시체계 변인은 가정 미시체계, 장애 자녀 미시체계, 복지관 미시체계로 분류하여 가정 관련 미시체계 변인은 월 가구 소득, 자녀수, 결혼 만족도, 남편의 지지, 가족의 기능성, 친정어머니와의 애착을,

인 없이 장애아 어머니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개인의 존엄성과 독립심을 조장하고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장애 자녀 관련 미시체계 변인은 자녀의 연령, 성별, 출생 순위, 장애 정도를, 복지관 관련 미시체계 변인은 부모 교육 실시 여부를, 미시체계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중간체계 변인은 복지관 이용 만족도와 복지관 이용 기간을, 유기체와 직접 상호작용하지는 않으나 영향을 미치는 외체계 변인으로서는 주위의 도움과 복지관 이외의 서비스 이용을, 마지막으로 거시체계 변인은 거시 체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아 어머니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효과 검증 연구로 선정하였다. 다음에서는 생태 체계별로 분류한 모형에 의거하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체,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변인에 대한 선행 연구의 고찰이 전개된다.

유기체 변인: 어머니의 연령, 학력, 종교, 취업 여부, 우울증, 자아 존중감

본 연구의 유기체 변인은 장애아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들이다. 개인의 행동을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간주할 때 개인을 유기체로 정의할 수 있다.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장애아 어머니의 연령, 학력, 종교, 취업여부, 우울증, 자아 존중감이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체 변인으로 선정되었다.

어머니의 연령: 연령과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는 세 방향-정적/부적/상관없음-으로 정리된다. 제갈광철(2001)은 어머니 연령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는 반면, 박재상(2001)과 김영미(1990)는 어머니 연령이 낮을수록 아동의 특징과 신체적 무능력에 대해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한편 부모의 연령과 양육 스트레스 간에는 상관이 없다는 연구도 다수 있다(강시열, 2000; 윤수영, 1991; 하수민,

2002; 황경자, 2002). 강시열(2000)은 그러나 양육 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아동의 어려운 특성’ 영역에서 부모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상반된 견해는 연령 변수가 갖는 경험과 활력이라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 같다. 연령이 높으면 경험이 주는 긍정적 효과가, 연령이 낮으면 활력이 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 학력은 연령과 마찬가지로 세 방향-정적/부적/상관없음-으로 정리된다.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장애아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으며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를 더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적게 느낄 것이라는 반면(Korn, et al, 1978; 장진국, 1995; 정광덕, 2003; 정원미, 1994),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고 또한 자녀의 장애가 가져올 장기적 문제를 보다 상세히 알게 되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낄 것이라는 연구결과(제갈광철, 2001; 서혜영, 1992)도 있다. 한편, 학력은 영향이 없다는 국내 연구자들의 최근 연구 결과도 다수 있다(강시열, 2000; 이미향, 2001; 윤수영, 1991; 하수민, 2002; 황경자, 2002; 황미영, 2003).

어머니의 종교: 종교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 역시 세 방향-정적/부적/상관없음-의 결과를 보였다. 류정혁(1990)은 종교심과 신앙심이 강한 어머니일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느낀다는 반면, 정원미(1994)는 종교가 있는 어머니일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강시열(2000), 하수민(2002)과 현미진(1997)은 종교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종교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양면성

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 취업 여부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두 방향-부적/상관없음으로 정리된다.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장애아 양육에 더 잘 적응한다는(이효성, 2002) 반면, 취업 여부와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상관이 없다고도 한다(박재상, 2001; 윤수영, 1991; 하수민, 2002). 김정아(2003)는 취업 유무와 양육 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하위 영역인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영역과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영역에서는 비취업모가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취업모들이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어머니의 우울증: 우울이란 사랑의 갈구, 죄의식, 그리고 자신의 무가치한 감정을 중화시키려는 욕망으로, 또는 무기력과 낙담함을 보여 지지와 보호를 받으려는 감정으로 해석된다(오승혜, 1998). 장애아 어머니의 우울증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는 한 편 밖에 찾을 수 없었다. 최근 보고된 하수민(2002)의 연구에서 장애아 어머니의 우울증은 이 연구의 양육 스트레스 관련 20개의 독립 변수 중 가장 정적 상관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최보금(1993) 또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 또한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우울증의 원인을 고진부(1978)는 경제적 문제, 대가족 간 갈등, 자녀에 대한 기대감의 좌절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증간 관계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장애 없는 자녀의 부모와 비교함으로써 장애아 부모의 심리를 다룬 선

행 연구들이 있다. 장애아 어머니는 비장애아 어머니 보다 걱정이나 불안정도가 높고(김은숙, 1986), 우울 증상이 많을 뿐 아니라(Marcus, 1977),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Noh, Dumas, Wolf, & Fisman, 1989). 또한 장애아 부모는 장애아의 부족한 능력과 외모로 인해 거부나 분노, 절망 등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동시에 자녀 출생 후 자신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보고하는 비율이 높다(Waisbren, 1980, 서혜영, 1992, 재인용).

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들은 양육 스트레스는 성격과 관련이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는 개인의 성격구조와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는 개인이 심리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보는 관점(남순현 외, 1998; 손광훈, 1996)과 성격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적응방식은 다르다는 관점도 있다(안범현, 1999).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에 관한 서혜영(1992)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22.1%가 약한 우울 증상이 있으며, 41.1%가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우울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민(2002)의 연구에서도 19.9%가 약한 우울 증세를, 30.9%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의 심각한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어 조사대상자의 과반수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었다. 서혜영의 연구와 십 년의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 어머니의 우울증 비율은 비슷한 양상이었다.

장애아 어머니에게 만연된 우울증세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원인 변수이나, 결과변수이나에 대한 방향성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규명하는 국내의 선행 연구 결과는 찾을 수 없었다. 또 어머니의 우울증이 양육스트레스와 상호 상승적 효과를 내어

두 변수가 공존 시 각각의 독립적 주효과도 상승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국내의 선행 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이것이 양육스트레스에 독립변수로 작용하는지 결과변수로 작용하는지, 또 상호 상승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가 설정한 목적의 범위 밖의 작업이기는 하나 추후 규명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 시점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 장애아 어머니에게 우울증세가 심각하다는 현상적 사실과 이에 대한 사회 차원의 관심과 주목이 시급하게 주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과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 연구는 대체로 부정 상관계로 일치한다(양귀화, 2001; 오수진, 2003; 제갈광철, 2001; 황경자, 2002).

미시체계 변인: 가정, 장애자녀, 복지관

가정 미시체계: 월 가구 소득, 자녀수, 결혼 만족도, 남편의 협력, 가족의 기능성, 친정어머니와 애착

월 가구 소득: 월 가구 소득과 양육 스트레스에 관하여는 대체로 두 방향-부적/상관없음으로 연구결과가 집약된다. 수입은 장애아 어머니의 대처 행동과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끼치며 수입이 높을수록 거부감,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심리 태도가 적게 나타난다는 반면(Gallagher et al, 1983; 김애란, 2000; 정원미, 2000; 제갈광철, 2001), 수입은 상관이 없다는 결과(이미향, 2001; 강시열, 2000; 하수민, 2002; 현미진, 1997)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장애아 양육에 투자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사료된다.

자녀수: 자녀수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정적/부적/상관이 없다는 세 방향이다. 장애자녀를 외동으로 키우는 것보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더욱 도움을 받는다는 결과도 있고(김희수, 1994; 윤수영, 1991), 최문실(2001)의 연구에서와 같이 장애아의 남자 형제의 수가 어머니에게 신체적인 부담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아 형제자매들의 성별 특성이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하수민(2002)은 자녀수와 양육 스트레스 간에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결혼 만족도: 결혼 만족도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는 한 편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이 연구에서 장애아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와 양육 스트레스 간에는 상관이 없었다(하수민, 2002). 그러나 장애아 부모들은 결혼만족도가 낮으며(Bristol, et al., 1988; Friedrich & Friedrich, 1981; 양경화, 2001), 전업 주부와 취업 주부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조혜승(1997)의 연구에서는 남편과 관계가 좋고 결혼생활에 만족할수록 양육 스트레스 점수가 낮게 나타난 바 있다.

남편의 협력: 대체로 남편의 지지는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 중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이는 변수이다(김미경, 2000; 김효진, 1999; 김희수, 1994; 박재상, 2001; 신향숙, 2000; 양복인, 2000; 정청자, 1989; 현미진, 1997). 그러나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수민, 2002). 이는 장애아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결과로서 정상아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와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가족의 기능성: 가족의 기능성이란 가족 상호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 수준을 의미한다 (Smilkstein, 1978, 손화희, 1998 재인용). 가족 기능과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결과는 대체로 부적 상관으로 모아진다. 장애아에 대한 부모의 부담감이 클수록 가족 기능의 수행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조화된 유형의 가족보다 극단적 유형의 가족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어용숙, 2000; 정원미, 1994). 그러나 하수민(2002)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기능성이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정어머니와 애착: 친정어머니와 애착이란 딸이 친정어머니를 신뢰하며 문제가 있을 때 친정어머니와 상의하기를 원하고, 또 친정어머니는 딸의 요구와 정서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유은희, 1990). 애착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최근 연구자들은 가족을 구성하는 하위 체계인 부부 체계, 부모-자녀 체계, 형제 체계 중 각 체계 간에 일어나는 사건은 다른 체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상호 의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Belsky, 1981).

친정어머니와 애착이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국내의 선행 연구는 영향력을 발견하지 못한 하수민(2002)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찾을 수 없었다. 단지 유희정(2002)의 연구에서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성인 애착의 하위 척도로 사용한 불안정도가 그들의 양육 스트레스에 정적 상관이 있음이 조사된 바 있다. 한편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김리진(2000)의 연구에서 친정어머니와 애착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조사되었다. 취업모와 자녀 간 애착 안정성에 관련된 변인을 탐색한 이정희

(1994)는 성인기 애착 유형이 부모 양육 태도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힌 바 있다.

장애자녀 미시체계: 자녀의 연령, 성별, 출생 순위, 장애정도

자녀의 연령: 장애 자녀의 연령과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정적/부적/상관이 없다/발달 단계별로 따라 달라진다는 네 방향으로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장애아의 연령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간에 정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자들의 설명은 장애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렇지 않은 아동과 비교하여, 능력 면에서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되고, 다루기도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한 연구가 국내외에 다수 있다(Bristol, 1979; Gallagher et al, 1983; 성영혜 외, 1997; 양경화, 2001; 하수민, 2002). 반면, 부적 상관은 연령이 낮은 장애아의 어머니가 연령이 높은 장애아의 어머니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낸다는 것인 데(김애란, 2000; 강시열, 2000), 강시열의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모의 고통’과 ‘아동의 어려운 특성’으로 명명한 하위 영역에서만 6~10세 아 집단과 16~20세 아 집단의 부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장애아의 나이가 어릴수록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과 부모의 스트레스 간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결과는 Bradshaw와 Lawton(1978), 강시열(2000), 그리고 정광덕(2003) 등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발달 단계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주장을 하는 연구자들은 아동의 발달 단계에서 학령기가 되면, 부모는 아

동의 능력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적절한 교육 시설에 배치해야 할 책임을 느끼므로 학령기에서 가장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주장(Baker, 1997; 서소희, 1994)과, 자녀가 학령기(7-12세)일 때보다 학령 전기(1-3세, 4-6세)일 때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하는 주장(김정아, 2003), 성인기(19세 이상), 학령 전기(5세 이전), 학령기(6~18세)의 순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는 주장(강영자, 2002) 등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발달 단계에 따라 일관성 있는 패턴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니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므로 현시점에서는 다만 발달 단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자녀의 성별: 장애 자녀의 성별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성이 없다. Bristol(1987)은 남아의 부모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한 반면, Friedrich(1979)는 여아의 부모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애아의 성별은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영향이 없다는 연구들도 많다(Beckman, 1983; Tew & Lawrence, 1975; 강시열, 2000; 윤수영, 1991; 정광덕, 2003; 하수민, 2002). 강영자(2002)의 연구에서는 장애 자녀의 성별은 전체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이 없으나, 양육 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부모의 고통' 면에서 남아인 경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에서 남아의 부모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던 것은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출생 순위: 장애 자녀의 출생 순위는 대체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이 없다며 출생 순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 결과(Bristol, 1979; Friedrich, et al., 1985; Tew & Laurence, 1975; 강시열, 2000; 김영미, 1990; 이미자, 2002; 하수민, 2002)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장자일 경우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주장도 있다.

장애아 부모의 적응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첫 아이가 장애아가 아닌 경우 아이를 통해 안정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여 이후에 겪게 되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으나, 장애아가 첫째인 경우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국외의 연구 결과가 있다(Korn et al, 1978; Tew et al, 1977). 국내에서도 최은정(1987)의 연구에서와 같이 장애아가 첫째인 경우에 다른 경우에 비해 결혼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고 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자는 장자를 중요시하는 유교 가치관을 꼽았으며 그러한 가치관이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두드러진 경향일 것이라 시사한 바 있다.

장애 정도: 장애 정도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하여는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장애 정도가 심각할수록 아동을 돌보는 부담이 커지며 따라서 스트레스 정도도 높아진다는 결과(Bristol, 1979; Friedrich, et al., 1985; Holroyd & Guthrie, 1979; 강시열, 2000; 강영자, 2002; 김영미, 1990; 류정혁, 1990; 윤수영, 1991; 이경은, 1990; 이효성, 2002; 정원미, 1994; 제갈광철, 2001; 최문실, 2001; 황미옥, 2003; 하수민, 2002)가 있는 반면, 장애가 심각할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도 있다(Bradshaw & Lawton, 1978; Friedrich, 1979; Singer & Farkas, 1989; Tew & Laurence, 1975). 또한 신체장애보다 정신 장애아 부모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

고(유희정, 2002) 더 심한 우울증을 보인다고 한다(홍강의, 1992; 신민섭 등, 1992).

복지관 미시체계: 부모교육 실시여부

Mills(1988)는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앞으로 느낄 스트레스를 미리 인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논리에 비추어 보면, 장애아 양육에 당면할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부모 교육은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수민(2002)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관이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가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밝혀졌으며, 또한 부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어머니일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음이 보고되었다. 류봉기(1999)는 장애아 어머니의 부모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욕구는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중간체계 변인: 복지관 이용 만족도, 복지관 이용 기간

복지관 이용 만족도: 장애아 어머니의 복지관 시설 이용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들은 복지관 이용 만족도보다 장애 자녀에 대한 치료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예를 들어, 정원미(1994)는 장애아 어머니가 자녀의 치료 결과에 대해 갖는 만족도와 치료사의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양육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복지관 이용 기간: 복지관 이용 기간과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또한

상관이 없음을 보고한 하수민(2002)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찾을 수 없다. 다만 윤수영(1991)이 장애 아동의 치료교육 기간은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상관이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외체계 변인: 주위의 도움, 복지관 이외의 서비스 이용

주위의 도움: 남편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관한 국내 연구 또한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장애아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장애아 가족은 공식적 지원보다 비공식적 지원에서 도움을 찾는 경향이 강하며(Kazak, 1986; Unger & Powell, 1980; Waitsman, 1980; 황경자, 2002), 가족 및 다른 장애아 부모와 같이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의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Thoits, 1986). 이는 장애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에 기인하는 결과로 보인다. 반면에 서혜영(1992)은 장애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한국 사회의 경우 주위의 왜곡된 시각으로 인하여 장애아 가족들이 소외감과 좌절을 느끼기 쉬우므로 친척, 친구, 이웃과의 관계는 지지원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긴장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복지관 이외의 서비스 이용: 복지관 이외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었으나 이미자(2002)와 이미향(2001)의 연구에서 교육기관이나 치료기관에 다닌 기간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으로 나타난 바 있어, 교육과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애아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증가함이 밝혀졌다.

선행 연구에서 탐색된 장애아 어머니의 유용한 지지원(support sources)은 이 어머니들이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도구적인 지원을 더 많이

원하며(한고은, 2002), 또 전문 기관이 아동의 교육과 치료에만 몰두한 나머지 가정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부모에게 지나친 참여를 기대함으로써 때로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한 연구(Beckman, 1984; Bristol, 1985; Gallagher, 1985)에서 스트레스 경감에 있어 전문기관은 도움이 안 되거나 지지를 받지 못함을 시사하는 연구도 있다.

거시체계 변인: 장애아 어머니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 연구

장애아를 둔 어머니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시사되고 있는 가운데 송경선(2000)은 문제 해결 전략을 사용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발달지체 아동을 가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능력 부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개입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능력 부여를 Singh와 동료들(1995, 1997)이 지적한 공식적 서비스 체계 맥락 내에서 개발될 수 있는 가족의 능력 부여로 제한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능력, 자기 효능감은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송경선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부모-아동 간 상호작용이나 아동의 발달보다는 장애 아동 부모들의 심리 적응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박선민(2002)은 장애 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아동-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놀이 활동 프로그램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인 '부모의 고통' 영역 중 우울감이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박선민은 이것이 교사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줌으로서 사회적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한 데 기인했다고 보며, 이 결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수치가 크게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또 게임놀이를 모자가 상

호작용하며 서로 간에 긍정적 관계를 경험하게 한 결과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 수치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미술 치료를 통한 집단 프로그램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박미형, 2001; 석은주, 2003; 윤형주, 2001; 윤혜정, 2002; 이경은, 1990; 정현주, 2002), 이 연구들은 집단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집단 미술 치료가 지닌 집단 활동성과 표현성이 부모 자신의 모습이나 행동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자녀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도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기존 연구들(Kramer, 1971; Malchoiodi, 1990; Singer, 1980)과 일치하는 것으로, 집단 미술 치료가 장애 유아와 어머니 및 그들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시사한다.

박수경(2002)은 기존 연구들이 심리적 영역에만 치우쳐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폐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개인 심리 체계, 가족 체계, 사회 체계 내에서 그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과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기까지의 심리적 적응 과정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대처 유형 및 유용한 대처 전략에 관한 내용을 정보 제공자 면담 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그는 이 어머니들이 개인, 가족, 사회 체계 수준별로 다양하고도 유용한 대처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²⁾.

2) 조사 결과, 자폐 자녀의 어머니들은 먼저 개인 심리 수준에서 ①자녀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한다. ②어머니 자신만을 위한 '삼'의 시간을 갖는다. ③자녀의 좋은 행동을 보려고 노력하고 작은 변화에 의미를 부여한다. ④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낸다. ⑤종교 활동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승화시킨다. ⑥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마음을 다스

장애아 가족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관한 국내 연구(김미경, 2000; 신향숙, 2000; 양복인, 2000; 현미진, 1997)는 장애아 부모가 양육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부부의 특별한 적응 양식-부모 통제 소재(Parental locus of control)-을 가지고 있으며, 남편의 가정 내 역할수행 정도가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석인수(2001)는 사이버 교육을 통한 발달 장애아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아 부모에 대한 사이버 교육과 아버지에 대한 장애 자녀 교육 참여를 시도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2000년 이후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능력 부여를 위한 개입 프로그램, 놀이 활동 프로그램, 미술 치료를 통한 집단 프로그램, 스트레스 대처 유형 및 유용한 대처 전략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소수의 장애아 가족들이 도움을 본 것을 계기로, 이러한

질적 사례 연구들이 추후에는 양적 연구로 확대되어 일반화 검증을 거쳐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될 수 있다면, 장애아를 가진 많은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거시체계 차원에서 완화해 주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

III.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 연구를 생태 체계 변인별로 고찰하여 장애아 어머니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해주는 변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묘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생태 체계별로 분류하여 문헌 고찰로 탐색한 21개의 변인들 중에서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일관성 있게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 유일한 변인은 어머니의 우울증이었다. 또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탐색된 변인은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과 이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덧붙여, 부적 영향력이나 최소한도 영향력이었다는 변수는 다수 있다. 이들은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변인들이다. 어머니의 취업, 결혼 만족도, 남편의 지지, 친정어머니와 애착 정도, 월 가구 소득, 자녀수, 가족의 기능성, 복지관의 부모 교육 실시 여부, 복지관 이용 만족도와 이용 기간, 복지관 이외의 서비스나 주위의 도움을 이용하는 것 등이다.

반면, 결과의 일관성을 발견할 수 없는 변수 또한 상당수 있다. 어머니의 연령, 학력과 종교는 정적/부적/상관없음의 세 방향을, 자녀의 연령은 정적/부적/상관없음/발달단계별로 달라진다는 네 방향을 보일 정도로 혼란스럽다. 자녀의 성별,

린다. ⑦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신과 분리시켜서 생각한다. 두 번째, 가족 체계 수준에서는 ①남편에게 가서 및 양육에 관한 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한다. ②장애가 없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위안을 얻는다. ③남편에게 자녀의 증상과 하루 일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④친정 식구들에게 자녀에 대한 하소연을 한다. ⑤친정집에 자녀를 맡겨놓고 외출을 한다. ⑥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다. 세 번째, 사회 체계 수준에서는 ①같은 처지에 있는 부모들과 대화를 한다. ②같은 기관에 다니는 어머니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거나 쇼핑을 한다. ③자녀의 교육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기관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④부모 교육 프로그램 및 자녀의 증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⑤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등의 유용한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생 순위와 장애 정도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밝히는 결과가 제시된 바 없다. 이들 변수의 방향성을 밝히기 위해 제안할 수 있는 하나의 연구 방법은 외적 타당도를 확립할 수 있는 대단위 확률 표집이다. 그러나 장애아 어머니를 대단위로 확률표집하려면 시간, 노력, 연구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리라 본다.

최근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찰한 21개의 변수 중 거시체계 변인을 제외한 20개의 변수로 서울 지역에서 확률 표집한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조사한 바 있다(하수민, 2002). 결과 네 개의 유의한 변인이 추출되었으며 그들의 총 설명력은 43%이었다. 네 개의 변인명은 영향력의 순위별로 장애아 어머니의 우울증, 자녀의 연령, 장애 정도, 그리고 조기 교육기관에서 부모교육 실시 여부이었다.

이 결과를 생태학적으로 재해석하면,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기체인 어머니의 우울증, 미시체계인 장애 자녀의 연령과 장애 정도에 대해서 거시체계가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기 교육기관 수준에서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탐색한 21 개의 변인 중에서 최소한도 이들 네 개 변인을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덧붙여, 본 연구에서 탐색된 부적 상관의 변수(예: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과 장애아 어머니 지원 프로그램)와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변인(예: 어머니의 취업, 결혼 만족도, 남편의 지지, 가족의 기능성, 복지관 이용 만족도와 이용 기간, 복지관 이외의 서비스나 주위의 도움을 이용하는 것)들을 반영한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새로운 모형으로 미래 연구가 진행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을 거시체계 변인으로 채택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서, 장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이 조사 연구에 덧붙여 시도된다면,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수의 파악은 물론 그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기여하리라 본다. 각종 프로그램의 예는 장애아 어머니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예: 어머니의 우울증 관련 치료 내용 포함), 자녀의 연령과 장애 정도에 따른 자녀 케어 프로그램(예: 주로 어머니 및 가족원이 어떻게 장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이에 따라 가족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 포함), 정책 연구(예: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각종 조기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를 제안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수단위의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 질 때에야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론으로만 강조하지 않고, 구체적인 설명력을 갖는 변수와 이론적 배경으로 종합적인 설명력을 가진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일 때 이론적 배경과 검증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시열 (2000). 가정환경과 아동변인에 따른 시각장애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영자 (2002).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 와 사회적 지원.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김미경 (2000). 정신장애인 가족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입원 및 외래환자 가족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아 (2003). 장애아동의 발달연령에 따른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효진 (1999). 어머니 사회관계망과 양육 스트레스 및 장애아의 사회적 발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미형 (2002). 모자 상호작용 미술치료가 ADHD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 석사논문.
- 박선민 (2002). 어머니·아동·교사가 함께 하는 놀이 활동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수경 (2002). 자폐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참여관찰법을 사용하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재상 (2001).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과의 관계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석은주 (2003).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장애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 효과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석인수 (2002). 사이버 교육을 통한 발달장애아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수용 변화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경선 (2000). 문제해결전략을 사용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발달지체아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능력부여(family empowerment)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향숙 (2000).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디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버지 역할수행과 어머니 대처방식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 양경화 (2001). 일반아동과 자폐아동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귀화 (2001). 자폐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지지 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양복인 (2000). 자폐인의 생활주기에 따른 행동특성: 가족의 요구와 대처방안.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수진 (2003). 청각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논문.
- 유희정 (2003). 아동의 장애유형과 어머니의 애착유형에 따른 양육태도와 양육 스트레스. 한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현주 (2002). 콜라주에 의한 미술치료가 정신지체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 이경은 (1990). 자폐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자 (2002). 정신지체아 양육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아주대 석사논문.
- 이애현 (1996). 정신지체아와 자폐아 부모가 지각하는 가족요구, 가족특성 및 통제부위와 변인간 상관관계.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희 (1994). 취업모와 자녀간 애착안정성과 관련변인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효성 (2002). 발달장애 학생 학부모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진국 (1995). 정신지체아 부모와 일반아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광덕 (2003). 초등학교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변인별 양육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우석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현주 (2002). 동적 가족화에 의한 자폐아동 부모의 특성 비교연구. 동신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문실 (2001).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천안대 석사논문.
- 하수민 (2002).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191-200.
- 한고은 (2003). 장애아 어머니의 자녀 양육태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지지 관계 연구. 한일장신대 아시아태평양국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현미진 (1997). 장애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통제소·다처행동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경자 (2002). 중복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미영 (2003). 자폐아동의 부적응 행동 정도와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eckman, P. (1983). Influence of selected child characteristics on stress in families of handicapped infants,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8(2), 150-156.
- Bradshaw J, & Lawton D. (1978). Tracing the causes of stress in families with handicapped children.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8, 181-192.
- Bristol, M. (1979). Maternal coping with autistic children: adequacy of interpersonal support and affective child characteristic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0, 3943A-3944A.
- Bristol, M. (1987).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or communication disorder: successful adaptation and the Double ABCX model,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17(4), 469-484.
- Bristol, M., Gallagher, J. S. & Schoper, E. (1988). Mother and father of young developmentally disabled and nondisabled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41-451.
- Friedrich, W. (1979). Predictors of coping behavior of mothers of handicapp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6), 1140-1141.
- Friedrich, W., & Friedrich, W. (1981). Psychosocial assets of parents of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47, 1140-1141.
- Gallagher J, Beckman P, & Cross A. (1983). Families of handicapped children: Sources of stress and its amelioration. *Exceptional Children*, 50, 10-19.
- Gidner, L., & Eheart, B. (1984). Mediation with families having a handicapped child. *Family Relations*, 33, 187-194.
- Hamner, T., & Turner, P. (1985).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 Kazak, A. (1986). Families with physically handicapped children: Social ecology and family systems.

- Family Process*, 25, 265-281.
- Marcus, L. (1977). Patterns of coping in families of psychotic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7, 388-398.
- Mori, A. (1983). Early intervention techniques for the practitioner, *Familie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Rockville, Md.: Aspen Publishers, Inc.
- Noh, S., Dumas, J. Wolf, L. & Fishman, S. (1989). Delineating sources of stress in parents in parents of exceptional children. *Family Relations*, 38, 456-461.
- Korn, S., Chess, S., & Fernandez, P. (1978). The impact of children's physical handicaps on marital quality and family interaction, In, R. Lerner & G. Spahier(Eds). *Child influences on marital and family interaction; Life-span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press. 299-326
- Singer, L., & Fraker, K. (1989). The impact of infant disability on maternal perception of stress. *Family Relations*, 38, 444-449.
- Tew B., & Lawrence K. (1975). Some sources of stress found in mothers of pinabifida children. *British Journal of Preventive and Social Medicine*, 29, 27-30.
- Tew.B., Lawrence, K., Payne, H., & Rawnsley, K. (1977). Marital stability following the birth of a child with spanabifida,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1, 79-82
- Unger, D., & Powell, D. (1980). Supporting families under stress: The role of social network. *Family Relations*, 29, 566-574.
- Waisbren, S. (1980). Parents' reactions after the birth of a developmentally disabled child.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4, 345-351.

A Review of Literature on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Handicapped Children: An Ecological Approach

Chong-Hee Yoon

Su min Ha

Dept. of Family welfare & Community Service, Dongduk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paper were to describe the recent research findings documenting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ho had handicapped children, and to integrate these predictors with Bronfenbrenner's theory of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literature, the variables were classified into four system variables such as micro-, meso-, exo-, and macro-systems following Bronfenbrenner's model and examined accordingly. In addition,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proposed research model, a few testable research ideas were suggested.

Keywords : the handicapped children, mothers, parenting stress, an ecological approach